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성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음 3월 29일) 제204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교육부, 국가교육위로 전면 개편

유성엽 의원, 법안 발의

이따른 정책 혼선과 소속공무원의 비리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초정권적인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조직법)'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정부조직법 상 규정되어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권 따라 바뀌는 근시안적 정책 대신 교육주체 직접참여 장기적 비전 수립”

해당 법률에 따라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발전의 주요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며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에는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정권적인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어왔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독립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이를 두고 '오년지소계'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 예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큰 혼란을 치렀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두고 진보적 사관을 대거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취임이후 벌어진 수능정책 혼선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갈지자 행보도 교육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더욱이 지속 되어온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또한 교육부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피아'로 표현되는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유착관계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최근에는 사학비리를 감시해야 할 교육부 관료가 조사 내용과 내부 고발자 정보를 해당 사립대에 유출하는 일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 위원장은 "헌법 제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육부는 정권 입맛 따라 갈광질광하며 전문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독단적인 교육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제는 정권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해 가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뿐 아니라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의 각 교육주체들이 교육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참여형 합의제 의사결정을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봉사 약속은 지켜야죠” 12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임직원으로 구성된 '넝쿨봉사회'가 전북 군산시 대야면에 소재한 해운클락재단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짜장면 봉사 활동은 지난 2014년부터 5년째 이뤄졌으며, 공장 폐쇄가 결정됐지만 회원들은 "어려운 장애 가족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봉사 활동을 펼쳐가기로 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

실험적인 독립영화 질·양적 성장 이룬다

536회 중 284회가 매진 관객 수 8만200명 기록 프론트라인 등 사랑받아 다채로운 이벤트도 호응

'봄의 영화축제'이자 '독립영화의 산실'인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12일 폐막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 전주 고사동 '전주 풀'에서 열린 이날 폐막식에서는 배우 조재윤과 홍수현이 사회를 맡아 영화제의 폐막을 알렸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올해 영화제에서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독립영화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계 45개국 241편의 영화가 상영된 올해 영화제는 최대 관객, 최대 매진 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했다.

영화제 총 상영 횟수 536회 중 지난해보다 5회 많은 284회가 매진됐다.

관객 수도 지난해 기록(7만9107명)을 넘어선 8만200명으로 집계됐다.

정희진 감독의 개막작 '하키쿠 드래곤'과 폐막작 '개들의 섬'이 매진됐고, 국제경쟁 부문 대상작 '상속녀'와 '머나먼 행성'의 인기도 하늘을 찔렀다.

올해 처음으로 5편으로 늘어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영화 '굿 비즈니스', '겨울밤에', '파도치는 땅' 등도 매진 행렬에 동참했다.

특히 장유진 감독의 '굿 비즈니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으로 조성된 남북화합 분위기에 색다른 화두를 던졌다는 평을 얻었다.

발칙한 상상력과 혁신성을 앞세운 '프론트라인' 섹션과 '익스팬디드 시네마', '시네마블로지' 등도 많은 관객의 선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이벤트도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라픽 디자이너 100명이 디자인한 영화 100편의 포스터를 선보인 '100 필름, 100 포스터' 전시가 영화의 거리 일대를 수놓았다.

이충지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논쟁적인 주제의 영화가 모인 '프론트라인' 섹션 등이 관객의 큰 사랑을 받았다"며 "독립영화 마니아와 일반 관객 모두가 두루 즐길 수 있는 영화와 다채로운 이벤트 덕에 영화제가 흥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대안 영화의 장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더 공고히 다져 내년 봄에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주시, 시민 추억 담긴 번영로 빗꽃길 복원키로

전주시가 시민들의 봄나들이 추억이 담겨 있는 전군간도로로 불려진 '번영로(국도 26호선 전주-군산간 도로)'의 빗꽃길을 복원키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6억원을 들여 덕진구 반월동에서 도도동까지 번영로 약 4.4km구간에 왕벚나무를 심어 빗꽃길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반월동에서 성덕동까지 500m

구간에 왕벚나무 141그루와 핑크돌리(분홍 갈대) 1만7000여본을 식재했으며, 고사되거나 수형이 불량해 미관을 해치는 벚나무는 벌목하는 등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봄에 즐긴다는 빗꽃길 아래에서 나들이를 즐기고, 가을에는 분홍빛 갈대 사이에서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취재반



사람과도시가 품격서전주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